

“동절기 ‘과수 궤양’ 반드시 제거해야”

나주시 과수 농가서 현장 시연회 전염력 강한 ‘과일나무 구제역’ 전정 작업 시 반드시 제거 당부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Fire blight)’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배연구소와 봉황면 철천리 소재 배 과원에서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를 위한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하는 병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 채 뽑아서 태워 묻어야 해 사실상 과수농가에게는 폐농 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국 5개 도 22개 시·군 618농가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 예방의 필수인 ‘궤양 제거’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나무 가지에 검게 죽은 부위를 뜻하는 ‘과수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해 부란병, 검무늬썩음병 등 각종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전정·전정 작업 시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조치인 ‘과수 궤양’ 제거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cm 아래 위치한 가지를 절단한 후 도포제를 골고루 발라주고 사용한 농작업 도구는 철저히 소독해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cm 아래 위치한 가지를 절단한 후 도포제를 골고루 발라주고 사용한 농작업 도구는 철저히 소독해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전정 작업 시 궤양을 발견하면 신속히 제거를 통해 화상병 전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상병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해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전정 작업 시 궤양을 발견하면 신속히 제거를 통해 화상병 전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상병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해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 발견 신고는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화순 백신기술지원센터 정규직 10명 채용

2월4일까지 응시원서 제출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정규직 직원 10명을 채용한다.

직급별로 ▲부수석급(2급) 1명 ▲책임급(3급) 1명 ▲선임급(4급) 2명 ▲주임급(5급) 4명 ▲연구원(6급) 2명이다.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방법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월4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등기로 발송해야 하며, 2월4일 도착분까지만 접수된다.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제품화 기술, 백신 임상검체 분석과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총 263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 지원

4월까지 1ha당 24포대

2월4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함평군이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함평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은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투입해 1ha당 24포(40 l)를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서류 검토 후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나관중 함평군 친환경농산과장은 “올해 상토 공급에 자질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마켓’ 운영자 모집

농산물 직거래장터 9개 동

28일까지 농기센터 방문 신청

장성군이 2022년도 ‘장성호 수변길마켓’ (사진) 개장을 앞두고 운영자를 모집한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장성군이 운영 중인 대표적인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총 9개 동이 운영되고 있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총매출액 3억1900만원(전년대비 276%)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 및 공휴

일마다 수변길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10개월을 운영할 일반부스와 농산물의 특성상 장기 운영이 어려운 농업인이나 단체를 위한 계절부스(2개월)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오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수변길마켓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쌀귀리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2025년까지 30억 가공시설 구축

강진군이 올해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강진의 쌀귀리 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쌀귀리 가공시설을 구축한다.

공통 브랜드 개발, 제품 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쌀귀리 지구도 조성한다.

강진은 230농가, 800ha 재배면적에서 연간 2700여t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귀리 재배단지이다.

강진 쌀귀리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강진 쌀귀리.

군은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귀리 고추장, 떡, 전식 등의 18개 품목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쌀귀리 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쌀귀리 종합가공시설을 구축해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단의 역량강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쌀귀리 산업을 2·3차 산업과 연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공무원 슬로시티 역량 강화 교육

국제슬로시티 재가입 추진

장흥군이 슬로시티의 올바른 이해와 국내·외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슬로시티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사)한국슬로시티본부 사무총장인 장희정 신라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 장희정 교수는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슬로시티 이념, 국내외 사례, 슬로시티 장흥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장흥군은 2013년 지정 해제된 국제슬로시티에

재가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가입을 위한 국제슬로시티본부의 현지 실사만 남겨 둔 상태이다.

당초 국제슬로시티본부의 현지 실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제실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국제슬로시티에 재가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